



진안군 안천면, 수물민 위로 방향제 봉행

진안군 안천면 방향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안천면 다목적구장에서 제15회 신행민 방향제를 시행했다. 이번 방향제는 용담댐 수몰로 고향을 잃은 신행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향수를 달래고자 신행민과 마을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몰의 아픔과 애환을 나누었다. 안천중 방향제 추진위원장은 "용담댐 건설로 수몰된 신행민이 고향이 그리울 때 찾는 방향의 광장에서 고향과 이웃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리가 되도록 매년 방향제를 통해 수몰민의 평안을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호 안천면장은 "코로나로 인해 2년만에 방향제가 개최돼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며 열심히 생활하시는 신행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완공된 용담댐은 용담면, 안천면, 상전면 등 6개 읍·면 63개 마을이 수몰됐고, 용담면은 용담댐 건설로 1.025ha가 수몰되면서 14개 마을 741가구 236명여가 살아온 터전을 떠났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사랑 전국트로트가요제 개최

문신호씨 대상 · 서이림양 최우수상 수상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진안본부 주최하고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지부가 주관 전주매일신문사가 후원한 제1회 진안홍삼사랑 전국트로트가요제가 지난 12일 진안 마이든 테마파크 특설 무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진안의 명품 홍삼을 전국에 알리고 진안경제에 도움을 위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위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원용민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진안지부장 김양옥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회장 박영춘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지부 이사 등 임원들과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과 군의원들, 정상식 진안군 문화체육과장 김경중 작곡가 가수 박부철 씨 이수정 수정과한울타리 협회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의 노래실력을 맘껏 뽐냈다.



이날 행사에서 문신호(광주광역시)씨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에 서이림(전북전통예술고양양, 우수상에 허미숙(전주)씨가 차지했다. 최우수상 수상에 서이림(전북전통예술고양양, 우수상에 허미숙(전주)씨가 차지했다. 최우수상 수상에 서이림(전북전통예술고양양, 우수상에 허미숙(전주)씨가 차지했다. 최우수상 수상에 서이림(전북전통예술고양양, 우수상에 허미숙(전주)씨가 차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비전대, 목포과학대와 LINC 3.0 사업 관련 토론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지난 11일 세미나실에서 목포과학대학교와 LINC 3.0 사업 관련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 목포과학대학교 이민욱 LINC 3.0 사업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22년 LINC 3.0 사업 추진 방향 및 실적 △LINC 3.0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 특화분야와 연계해 구축한 기업협업센터(CC) 소개 및 운영 방안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적용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최승훈 단장은 "목포과학대학교는 보건계열, 인문사회 계열에 특화된 대학으로, 공학 계열이 중심인 우리 대학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배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해 지역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과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체 맞춤형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민욱 부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주비전대학교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 노하우를 많이 배웠다"며 "오늘의 배움을 통해 앞으로 LINC 3.0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 대학이 긴밀히 협력해 같이 성장하는 소중한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농수산대, 재학생 대상 농식품 디자인전 '답을 찾다' 개최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미래의 청년 농업 최고경영자(CEO)인 한농대 재학생들에게 농식품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리고,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해 농식품 디자인전 '답을 찾다'를 개최했다. 한농대 창업보육센터와 시우디자인센터의 산학 업무협약 체결 및 후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한농대 학생 축제인 한농제(11.14.~15.)와 연계해 한농대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농식품 상품 브랜드, 포장 디자인 성공사례를 전시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브랜드·디자인·상표 관련 상담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지난 30년 동안 농식품 농촌자원과 관련한 디자인을 연구한 시우디자인센터가 지자체와 개발한 우수 농식품 브랜드와 농식품 포장 디자인 등을 전시해 재학생들의 농식품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우디자인센터 노사우 대표를 비롯한 소속 디자이너들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진행해 예비농업인들의 창업과 사업 성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시우디자인센터 노사우 대표는 "마케팅의 필수요소인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마케팅에 대한 한



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디자인에 대한 인식 환기를 통해 예비농업인들의 창업과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재학생과 농식품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상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정현출 총장은 "농업경제가 생산하는 농식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독창적인 이야기를 담은 농식품 디자인이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 인월면, 동절기 취약계층에 난방용품 지원

남원시 인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왕길성, 이정일)는 16일, 혹한기 난방용품지원 사업을 추진, 관내 인화 취약계층 38명에게 전기매트 및 이불 36세트 (환가액: 237만원)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인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서 동절기 난방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였으며, 대상가구 선정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독거노인생활지원사 및 면장 1일 1가구 방문 등 민간복지 인적자원을 활용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했다. 이불을 전달받은 독거노인은 "기름값이 많이 올라 난방 걱정이 많았는데 따뜻한 이불을 전달받아 매우 좋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왕길성 인월면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민·관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 제공으로 복지 제강도를 높이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사회봉사센터, 지역사회에 목도리 전달

전주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봉사단이 지난 3년간 매해 직접 뜬 목도리를 지역사회에 나눠왔다. 현재 모두 1,000개의 목도리를 지역사회에 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학교 사회봉사센터는 정성을 담아 직접 뜬 목도리를 나눠 계획을 세우고 2020년 가을부터 지난 3년간 그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어제부터 1,000개의 목도리 나눔을 완료했다.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의 가판대와 모약신의 초입에서 나눔을 파는 어르신들, 고콜(폐지)을 수거하는 분들, 수녀의 집, 전주시 건강지원센터, 한사랑복지회, 예순사랑나눔, 희망이 꽃피는 집, 노인 복지관 등을 직접 돌며 물품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농협, 우리쌀로 만든 수능 떡 나눔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영생고등학교(교장 이장훈)와 전주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교장 홍덕인)에서 지역의 미래 인재에 응원하고자 '우리 쌀로 만든 수능 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전북농협은 최근 3년간 간 300여 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 인재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전북의 미래인재를 응원하고자 우리 쌀과 농산물로 만든 참쌀떡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600여 명에게 전달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지역 학생들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 전북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전북농협 또한 함께하여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영생고등학교는 "학생이 즐겁고 교직원이 행복한 학교", 전주대 사범대는 "비전을 세우고 실행하는 꿈터"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역사와 전통을 지닌 명문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송상현 유일필터 대표, 봉남초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김제 봉남초등학교(교장 홍경)는 지난 11일 자동차필터 전문업체 (주)유일필터 송상현 대표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5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전했다. (주)유일필터는 자동차필터 전문 생산기업으로, 국내 자동차입체는 물론 해외 20개국 자동차입체에 필터를 공급하고 있다. 송상현 대표는 봉남초등학교 41회 졸업생으로, 초등학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모교 후배들이 더 나은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편 발전기금은 관악 윈드오케스트라 운영과 아름다운 숲속 목련숲을 활용한 감상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남원농협 · 춘향골농협, 환경정화 봉사활동

NH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는 16일 춘향골농협(조합장 임승규), 고흥주부모임 남원연합회(회장 김점순), 농가주부모임 남원연합회(회장 홍옥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센터장 고인배), 농신보 남원센터(센터장 남용수)와 춘향골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주변 일대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참여자들은 농촌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솔선수범을 보였다. 한편 권오정 지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아름다운 농촌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건강관리협 전북지부, 1사 1촌 결연마을 환경정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김민수)는 '1사 1촌' 결연마을인 전주 연화마을을 방문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16일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건협 전북지부 직원 및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은 연화마을 입구에서 덕천저수지까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 하는 등 깨끗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에 온 힘을 쏟았다. 건협 전북지부는 지난 2011년 덕진구 연화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마을을 방문해 '농가 일손 돕기, 경로당 물품 지원, 마을 어르신 점심 대접' 등 12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건협 전북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 전북본부,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실시

NH농협은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전주완농협 영농폐기물처리센터에 찾아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을 16일 진행했다. 이날 장경민 본부장 송혁 농협전주완주지사장 김우철 전주완농협 조합장 등 농협 임직원 15여 명은 폐농약 병 및 영농폐기물 수거·분류 작업과 함께 농가 대상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교육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일손부족으로 영농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농촌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으며, 농협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영농폐기물과 폐비닐 수거 캠페인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장경민 본부장은 "우리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보전과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속적인 농촌일손돕기 및 환경정화활동 추진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가꾸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진안 주천면 주민자치위, 빨강 지원 봉사활동

진안군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수행)는 16일 겨울철을 맞아 난방·유류 구입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빨강을 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평소 모은 빨강과 군 산립 과정에서 지원 받은 빨강을 활용해 손수 빨강 마련이 어려운 관내 3개 노인가구를 방문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적정규격으로 자른 총 1톤 상당의 빨강을 전달했다. 조수행 주민자치위원장은 "추운 겨울에 고유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가구에 이번 사랑의 빨강지원 봉사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빨강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